

5. 18민주화운동 40주년 특집

5. 18민주화운동 40주년 특집

5.18민주화운동 40주년 사진 르포



1. 5월 시민행진
5월 시민행진에서 열사들의 얼굴을 딛 인형과 참가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2. 금남로
금남로를 비롯한 광주 시내에는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현수막과 포스터들이 가득 걸려 있다.
3.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
코로나19 사태로 기념식 참여가 제한돼 거리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기념식을 보고 있다.
4. 대인시장
시민들에게 주막밥과 생필품을 제공했던 5.18민주화운동 당시를 뚜렷하게 기억하는 대인시장 상인들.
5. 전일빌딩
폭력집압 증거인 탄흔이 남아 있는 전일빌딩은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마흔 번째 5.18, 마흔 번째 행진곡

김지원 기자 kjw990327@khu.ac.kr
김수혁 기자 sherik@khu.ac.kr
박혜림 기자 apricot12@khu.ac.kr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대학주보는 광주를 찾아 특별취재를 진행했다. 지면에 실리지 않은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대학주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은 올해 5월, 광주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한 많은 행사가 열렸다.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확산 예방을 위해 규모가 축소되거나 진행 계획이 변경되기도 했지만 5.18의 의미를 되새기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마음만은 다르지 않았다. 5월 18일을 이틀 앞둔 16일에는 5.18 민주항쟁 기념행사위원회 주관으로 ‘오월 시민행진(시민행진)’이 진행됐다. ‘40년 전 그날과 오늘의 사람들’이라는 부제를 단 이 행사에서는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을 현상화해 제작한 대형 인형들이 시민들과 함께 광주 시내를 행진했다. 시민행진의 출발지이자 도착지였던 ‘5.18민주광장’에서 금남로를 따라 멀리 떨어진 곳에는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이 자리하고 있다. 기록관 1층 전시실, 40년 전 5월 광주에서 스러져간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다. 그들 스스로 사랑도 명예도 바라지 않고 나아갔을지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잊지 않고 함께 해야 할 이름들이다.

동자는 간 데 없고 깃발만 나부껴

광주에서 만난 택시기사 유정균(55) 씨는 “그 당시 광주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들 5.18의 증인이라고 봐야 한다”

고 말했다. 그의 말 그대로 광주에서 만난 시민들은 저마다의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던 1980년 5월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꺼내 보여줬다. 정영숙(68) 씨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길에서 군인들이 누군가를 구타하고 차에 실어 가는 광경을 봤다”면서 “흔비백산해 자전거도 버려두고 집으로 도망쳤다”고 말했다. 천정이 있는 합평으로 가려고 했지만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나설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도 정 씨는 피를 뉘을 흰 천을 끊어 담장 밖으로 내밀었다. 그는 “잘못 없는 어린 학생들이 계속 두들겨 맞고 어딘가로 끌려가는 데 뭐가라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한다.

정범수(74) 씨가 처음 들려준 것은 도청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정 씨는 “운전자가 총에 맞아 조종할 사람이 없어진 차가 방향을 잃고 달려가면서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벌어졌다”고 회상했다. 정 씨는 “시위대를 위해 시장 상인들끼리 돈을 모아 빵과 우유 등 식량을 사서 나눠주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 방금 전에 지나가며 봤던 학생들이 쓰러져 있었다”면서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신 시장 할머니들도 다들 나서서 쫓기는 학생들을 감춰주곤 했다”고 말했다.

1980년 조선대 신입생이었던 임석(60) 씨는 “데모하며 쫓기고 뛰어다닐 때 길에서 다가와 물 담긴 주전자를 내밀던 분들이 아직도 많이 생각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도시 곳곳에 계엄군이 휘두르는 폭력과 그로 인한 혼란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저마다 다른 삶을 살던 광주 시민들은 차츰 모두가 모두의 동지가 돼 갔다. 서로 기대고, 막아주고, 일으켜 세워주었던 동지들 가운데 누군가는 이제는 아무런 말이 없이 영원 속에 누웠지만, 누군가는 흐트러지거나 그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기억하고 그 날을 잊지 않으면서 마흔 번째 5월을 살아가고 있었다.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올해의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은 국립 5.18민주묘지가 아닌 5.18민주광장에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희생자 유족들을 비롯한 400여 명의 제한된 인원이 참석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오월 정신’은 광범한 사람들의 광범한 희망이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며 만들어진 것이다”라며 “광주 시민들의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과 나눔이 계엄군의 압도적 무력에 맞설 수 있었던 힘이었다”고 말했다.

기념식이 열린 5.18민주광장은 옛 전남도청과 상무관 사이에 있다. 현재 전 시관으로 사용 중인 옛 전남도청은 계엄군에 맞선 시민군의 최후 항쟁지이고, 상무관은 사망한 시민들의 시신을 임시로 안치했던 곳이다. 40년 전의 신랑을 사서 나눠주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 국가폭력을 반성하고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되새기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전두환 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무장 헬기에 의한 기총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조 비(60) 씨는 “데모하며 쫓기고 뛰어다닐 때 길에서 다가와 물 담긴 주전자를 내밀던 분들이 아직도 많이 생각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도시 곳곳에 계엄군이 휘두르는 폭력과 그로 인한 혼란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저마다 다른 삶을 살던 광주 시민들은 차츰 모두가 모두의 동지가 돼 갔다. 서로 기대고, 막아주고, 일으켜 세워주었던 동지들 가운데 누군가는 이제는 아무런 말이 없이 영원 속에 누웠지만, 누군가는 흐트러지거나 그들의

광주 시내를 걷다 보면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불꽃 부조가 새겨진 동근 석조물을 발견할 수 있다. 그곳이 5.18민주화운동 시작지임을 알리는 표지석이다. 술한 음해와 왜곡에도 광주의 ‘산천’은 진실을 품고 방문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5.18에 관해 묻는 질문에 많은 시민들은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사실의 조각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올해 활동을 개시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의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서로 엇갈리는 대답을 들려주었다. 이재환(63) 씨는 “이전에는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고 본다”면서 “남아있는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남(65) 씨는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지만 크게 낙관적인 기대를 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정 모(69) 씨는 “그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지만 이제는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책임자 처벌이나 진상규명을 말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이뤄질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은 “너무 오래 지연된 정의는 부정된 정의다(justice too long delayed is justice denied)”라는 말을 남겼다. 진 ‘광주사태’로 불리며 폭동으로 때도 당했다. 하지만 그날의 진실을 기억하고, ‘오월정신’을 이어받고자 하는 이들에 의해 진상규명과 피해자 복원을 위한 노력이 계속됐다. 80년 광주에서 잠시 좌절된 민주화를 향한 열망은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져 결실을 맺었다. 5공화국이 종식된 뒤인 1988년 국회에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설치돼 당시 광주의 진실이 처음 전국에 공공연히 알려졌다. 문민정부 시기인 1994년 12월에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신군부 주요 인사들을 반란 및 내란에 관련된 혐의로 처벌하고 이어 1997년, 5월 18일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했다. 뿐만 아니라 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복권, 국립 5.18민주묘지 조성 등도 이뤄졌다.

그러나 숙제는 아직 남아있다. 진상규명위는 근거 법률에 따라 5.18 당시 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사망, 상해, 실종, 양매장 사건 규명에 나선다. 그에 더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및 조직의혹사건과 최초 발포 및 집단발포와 계엄군 행기 사격의 책임자와 경위, 행방불명자의 구체적인 규모 및 소재, 학살지와 양매장지의 소재 파악과 유해 수습을 위한 조사를 목적으로 한다.

여전히 만연해 있는 5.18에 대한 왜곡과 사실 부정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5.18을 ‘북한이 사주한 폭동’이라고 주장해 온 극우논객 지만일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1심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올해 5월 18일에도 현충원을 찾아가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최근에는 극우 유튜버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은 “너무 오래 지연된 정의는 부정된 정의다(justice too long delayed is justice denied)”라는 말을 남겼다. 진 ‘광주사태’로 불리며 폭동으로 때도 당했다. 하지만 그날의 진실을 기억하고, ‘오월정신’을 이어받고자 하는 이들에 의해 진상규명과 피해자 복원을 위한 노력이 계속됐다. 80년 광주에서 잠시 좌절된 민주화를 향한 열망은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져 결실을 맺었다. 5공화국이 종식된 뒤인 1988년 국회에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설치돼 당시 광주의 진실이 처음 전국에 공공연히 알려졌다. 문민정부 시기인 1994년 12월에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내게 대학생 친구라도 한 사람 있었다면...” 노동운동가 전태일 열사의 일기에 등장하는 구절이다.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야간 시간대 교육을 제공하는 ‘야간 학교’의 졸업 말인 야학, 그중에서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야학은 전태일 열사의 죽음 이후 서울에서 본격 태동하기 시작했다. 국한문을 혼용하던 시대에 노동 관련 규정이나 법규, 정치사회 이슈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노동자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였다. 1978년 광주의 변두리 열악한 지방공단 주변에서 등장해 5.18민주화운동에 기여했던 ‘들불야학’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우리신문은 당시 전남대 독어독문학과 학생으로 들불야학 활동에 참여했던 임낙평(63세) 씨를 만나봤다.

‘들불’이라는 이름은 당시 유행하던 소설인 유현종의 <들불>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낙평 씨는 “1978년 당시 유신군사 독재체제 아래 언론과 학문,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유린되고 노동3권도 허용되지 않는 시기였다”며 “야학 활동을 통해서나마 이를 극복해보자는 결의로서 동학을 연상해 ‘들불’로 이름지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현종의 소설에서 <들불>은 ‘들난에 반지는 불길’이라는 뜻으로 사용돼 민중이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5.18민주화운동과도 닮아있다.

그런 의미에서 임 씨는 “야학도 학생운동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당시 야학 활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에 관심이 많았던 학생들로 야학 활동을 통해 정치사회적 개혁 과정은 민중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자각했기 때문이다.

또 “야학에서는 가르치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배운다는 의미에서 교사 아닌 ‘강학’이라 불렀다”며 “야

학에서 노동자들은 정치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초보적인 내용을 배우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노동 현장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야학이 학문과 현실, 학생과 노동자 사이의 공백을 메꿔주는 공간이었던 것이다. 임 씨는 활동 당시를 “학교를 다닐 때는 물론이고 스스로 방학도 반납하며 야학에 열중했던 고된 일상이었다”고 회상했다. 낮에는 강학 확보와 학생 모집, 교재와 학사운영 마련에 힘쓰고 야간에는 수업에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또 수업뿐 아니라 토론과 학생들과의 만남, 그리고 정치·사회·역사에 대한 공부도 함께 수행해야 했던 까닭이다. 그러나 그는 “활동의 고된보다 야학에 대한 공안 당국의 탄압이 더 어려웠다”며 “공안을 대변하는 대학으로부터 야학을 폐쇄하라는 유형무형의 압박이 계속됐고 사찰과 미행, 회유는 물론 때에 따라 야학에 참여한 강학들이 경찰에 연행돼 조사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야말로 야학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탄압이 이뤄지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임 씨는 “5.18민주화운동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윤상원과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던 박관현, 그리고 야학 인근 주민들이 있어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었다”며 “야학 탄압을 이겨내며 갖춘 조직성이 있어 5.18민주화운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임 씨는 “들불야학은 5.18민주화운동에서 홍보전선대 역할을 했다”며 그 대표적 인물로 투사회보를 들었다. 투사회보는 윤상원 열사와 들불야학 성원들이 마비된 언론을 대신해 제작한 신문이다. 그는 “윤상원은 민주화운동이 지속될 것이기 지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명칭을 ‘회보’로 지었다”며 “시민들에게 민주화운동 현장을 알려 조직적 참여를 독려하기



임낙평 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운집한 사람들의 열기로 뜨거웠던 금남로 거리를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다.

“야학에서 노동자들은 정치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초보적인 내용을 배우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노동 현장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었다”

“

위에 투사회보를 간행해 배포했다”고 탄생 배경을 밝혔다. 이어 “투사회보 간행 이전에도 들불야학 성원들이 민주화운동 중심지였던 옛 도청 부근에 참여 독려와 시민들의 분노를 담은 대자보를 붙였다”며 “집회 현장에 호소문이나 격문, 선언문 등의 유인물을 간행해 살포했는데 이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했었다”고 덧붙였다. 지속적인 정보 전달과 호소로 민주화운동에 활기를 불어 넣는 역할을 했던 셈이다.

투사회보 활동과 관련해 임 씨는 “20대 마지막으로 임 씨는 온갖 탄압에 시달렸던 시간을 다시금 회상하며 “야학이나 유인물 간행, 투사회보 제작과 배포는 민주화운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일이었다”며 계엄포고령을 위반하는 일이었기에 참여하는 성원들은 그에 따르는 위험을 각오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두운 시대를 반드시 돌파하기 위해 우리가 이 일을 해야만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서술 퍼렇던 시대 속 청년들의 이야기를 맺었다.

“그때 당시 제작 상황을 이야기했다. 또 수 천 장을 인쇄하기 위해 밤을 새우기 일주였고 모든 기계들이 문을 닫아 물자를 조달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문을 두드리며 주인에게 호소해 종이를 구입해 제작하는 어려움도 따랐지만 초기부터 물자 조달부터 제작, 2인 1조로 배포하는데 이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했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야학에 대한 탄압을 극복하며 갖춘 조직성이 빛을 발한 결과였다.